

재외 문화원 K팝 외국인 수강생 급증

방탄소년단(BTS)과 트와이스 등 한류 스타들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전 세계 한국 재외문화원 25곳에서 2,600여명이 K팝을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지난 26일 2019년 한 해 동안 21개국 재외문화원에서 진행한 'K팝 아카데미(한국 대중음악 강좌)' 사업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25개 문화원에서 수강생 총 2,608명이 각자의 수준에 맞춰 춤과 노래를 배웠다고 밝혔다. 전체 수강생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K팝 아카데미는 한국 대중음악 전문 강사들을 재외문화원에 파견해 현지 한류 팬들에게 최신 K팝 춤과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강좌이다. 4년째인 올해는 8개월 동안 미국, 러시아, 태국, 인도, 독일, 터키 등 21개국의 문화원에서 강좌가 열렸다.

해외문화홍보원에 따르면 춤이 노래 과정보다 약 2배 높은 수요를 보였고 BTS와 트와이스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곡 외에도 발라드, 드라마 삽입곡(OST)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관광명소 가상현실(VR) 체험, 드라마를 통한 한국 역사 강좌 등 한국문화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고 해외문화홍보원은 설명했다.

재외문화원의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팝 강좌와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을 경험한 학생들 가운데 85%가 향후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트와이스, 2019 일본 최고의 K팝 가수

걸그룹 트와이스(TWICE·사진)가 2019년 일본 최고의 K팝 가수에 올랐다.

트와이스는 지난 23일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연간 아티스트 토탈 세일즈 랭킹'에서 4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K팝 가수 중 가장 높은 순위이며 트와이스가 2017년 6월 현지에서 데뷔한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이다.



스트 2집 '#트와이스2'와 정규 2집 '&트와이스'로 각각 1위와 6위를 차지했다. 또한 스포티파이의 '일본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K팝 걸그룹 최고 기록인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2일 일본 정규 2집 '&트와이스'가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정상에 오르며 그룹 통산 다섯 번째 1위를 거머쥐었다. 이는 '해외 여성 아티스트 앨범 1위 획득 작품 수'에서 마리아 캐리(Mariah Carey)와 타이거북이다.

트와이스는 오리콘뿐만 아니라 빌보드 재팬, 타워레코드, 스포티파이가 발표한 연간 랭킹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빌보드 재팬의 '톱 아티스트' 부문에서 올해 K팝 가수 최고 기록인 5위에 등극했고, 타워레코드의 'K팝 일본 발매 앨범 톱10' 차트에서는 베

트와이스는 K팝 가수로 유일하게 2019년을 포함해 3년 연속 일본 대표 연말 가요 축제 NHK '홍백가합전'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임을 증명했다.

아리아나 그란데, 해외 투어 중 공연 중단



미국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사진)가 정신적 고통에 해외 투어에서 일부 일정을 그만뒀다.

지난 24일 '뉴스시'는 CNN을 인용해 아리아나 그란데가 정신적 고통에 해외 투어에서 라이브 앨범 'k bye for now' 공연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그란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자신의 해외 투어 '스위트너 월드 투어'를 마치고 몇 시간 지난 후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트너 월드 투어'는 올해 3월부터 북미와 유럽을 돌며 진행되고 있다.

그란데는 지난 7월 해외 투어 중 노래하다가 우는 동영상이 나온 후 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연하면서 느낀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당시 "나는 이번 투어에서 모두 것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 전념하고 있지만 가끔 눈물이 난다."고 털어놓았다.

그란데는 지난 5월과 11월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아파서 공연을 중단한 후 투어 일정을 다시 잡은 바 있다.

1296호 숫자퍼즐 정답

2	9	4	7	1	5	8	3	6
7	1	8	9	6	3	4	2	5
3	5	6	2	4	8	7	9	1
8	2	7	1	5	4	3	6	9
4	3	5	6	9	2	1	7	8
9	6	1	3	8	7	2	5	4
5	7	9	4	2	1	6	8	3
6	4	2	8	3	9	5	1	7
1	8	3	5	7	6	9	4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사랑했지만 갈길이 달랐다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의 배필로 만나게 되는 배우자 인연도 운(運)의 흐름을 잘 만나야 원만하게 인연을 만나고 덕(德)을 입을 수 있는데 운(運)을 잘못 만나면 배우자 인연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 애로를 겪는다. 오래 전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필자를 방문한 것이다. 그 여성의 팔자(八字)를 보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타고난 그릇이 그래도 남들이 알아줄 만한 글과 학문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교육이나 의료 분야에서 남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지나고 있는 장기적인 운(運)의 흐름이 원만한 배우자의 덕(德)을 입기가 어려운 운의 흐름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여성분이 하는 말씀이 "제가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언제나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장기적으로는 배우자 복이 박한 세월이기는 하지만 올해에는 그래도 일시적으로 남자 인연이 생길 수 있는 운의 흐름이 되는데요. 혹시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았나요?"라고 물으니 그 처자가 하는 말이 "올해 초부터 화상 채팅을 통해서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었고 비록 화상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해왔지만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멀리 동부에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이곳 남가주에 있어서 그 동안 만날 수가 없었는데 지난 달에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와서 공항에서 딱 한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평생을

같이할 사람으로 기대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한 번 만나고 별로 오랫동안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바로 공항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이 저를 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울먹이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그 남자분의 사주를 보거나 또 처자가 지나고 있는 운(運)을 흐름을 보더라도 서로에게 배필의 인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해 주었지만 그 처자는 필자의 사무실에서 한참을 울다가 돌아간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